

권중달통감장학회 출범



정철재 권중달통감장학회 이사장과 권중달 교수

권중달통감장학회가 3월 15일 13시 관악구 남현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권중달 교수, 관악경찰서장, 권중달통감장학회 임원, 자치통감 강독회 회원, 일반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정철재 권중달통감장학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권중달통감장학회는 자치통감을 50여 년 동안 묵묵히 일관되게 연구에 매진해 온 권중달 교수님의 그 지론을 받고 출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권중달 교수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작은 했으나 서둘러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뜻만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주위에서는 왜 돈 써가며 어려운 일을 시작했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인류를 이끌어 온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 너머 가치를 추구한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살려 중등교육, 고교도, 대학교 도서관 등에 자치통감을 보급 비치할 예정이다. 젊은이들이 자치통감을 읽고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취지를 이해하고 심혈을 기울여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희망의 씨앗이 보이고 있다. 이 가치를 위해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 잃지 않고 매진할 것이니 여러분도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권중달 교수는 권중달통감장학회 출범 기념으로 '최고의 리더들은 왜 자치통감을 읽었을까'라는 주제로 제1회 통감리더십 강의를 했다. 강의에 앞서 권중달 교수는 2006년 정년퇴직을 하면서 약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데 그동안 번역해 놓았던 자치통감을 출판하려고 보니 출판사에서 출판하겠다는 확답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며 언제 출판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리다가는 출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철재 이사장이 큰 결심을 했다. 퇴직금으로 출판사를 차려 자치통감을 출판했다. 그리고 오늘 권중달통감장학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참으로 고맙다.

역사상 최고의 리더들, 세종과 쿠빌라이와 모택동은 자치통감을 읽었다. 왜 읽었을까. 당대 최고 리더들은 왜 자치통감을

을 읽고 살았을까. 자치통감이 주는 지혜와 안목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소리가 없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 변화의 싹을 간파해야 한다. 싹 보려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알 수 있다. 봄이 되는지, 여름이 되는지, 가을이 되는지, 겨울이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안목과 포용력과 자기 희생정신을 갖는 것이 지도자의 덕성이다. 그래야 위기에 처했을 때 역발상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역발상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주위에 공격통 변죽통이라고 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태평성대라던 그날 넘어가도 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엄중하다.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세종은 자치통감을 눈이 나빠질 정도로 수시로 읽었다. 세종은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를 각처에 나누어 만들게 하되, 5만 권은 조지소(造紙所)에서 만들고, 10만 5천 권은 경상도에서, 7만 8천 권은 전라도에서, 3만 3천 5백 권은 충청도에서, 3만 3천 5백 권은 강원도에서,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고 명”(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7일 인신)했다. 모택동은 중학교 때부터 자치통감을 읽기 시작해 책이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17권을 읽었다. 그 당시 인구 4억 중에 딱 한 사람이 자치통감을 읽고 중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쿠빌라이는 자치통감을 읽고 세계제국을 건설했다. 자치통감 속에 길이 있다. 길을 찾아야 한다. 자치통감을 읽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지도자를 잘 뽑는다. 이것이 내가 자치통감을 보급하려는 이유이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이다. 역사는 그 나라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 나라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갖다 쓰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권중달 교수는 앞으로 년까지 10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자치통감 강의를 할 예정이다.

권영환 편집국장

권영선 서울고속(주) 회장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권영선(추밀공과, 34세) 서울고속(주) 회장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인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고 15일 충북도청에서 가입식을 가졌다. 고향은 충북 음성으로 음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고속(주), 서울고속(주), 대한상운(주), 삼부개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풍장학회(현 인재양성재단)에 사재 1억원을 출연하고, 지난해 음성고등학교와 음성군장학회에 각각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권영선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국가사회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새마을훈장 2회, 산업훈장 1회, 국민훈장 1회를 수상했다. 권영환 편집국장

권충광 회장, 중국이 인정하는 자산관리 최고 전문가

북경 중기화자산평가유한책임회사(中企华资产评估有限责任公司) 권충광(权忠光, 조선족) 회장이 '경화동심상' 추천상을 받았다.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은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북경시정협 위원의 최고 영예로 알려져 있다.

권충광 회장은 흑룡강 출신으로 북경교통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을 취득했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북경 중기화자산평가유한책임회사는 1996년 설립되어 25년간 꾸준한 성장을 통해 중국에서 가장 명망있고 규모가



큰 종합자산평가기관 중 하나로 평가되며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최고의 기업으로 키운 권 회장은 타고난 근면성과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차세대 기업가들의 롤모델로 인정 받고 있다.

권오덕 중국청도안동권씨총친회장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안동권문의 당선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3월 8일 실시되었다. 전국 17개 시·도 2020개 투표소에서 1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투표율은 79.6%를 기록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동권문에서는 총 10명이 당

선되었다. 경기도 2명, 충청북도 1명, 충청남도 3명, 경상북도 4명이다. 안동권문의 모든 당선자들이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해당 지역 조합원들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기는 4년이다.

권영환 편집국장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조합장 권대우, 경기도 이천시 호법농협조합장 권혁준, 충청북도 충주시 수인보농협조합장 권오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농협조합장 권익수,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농협조합장 권대식,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농협조합장 권오영, 경상북도 안동시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경상북도 안동시 인동농협조합장 권대형,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농협조합장 권순옥,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인삼협조합장 권연준

동정

▲권순영(權純瑩, 북아공파 37세) 국민 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이 대 중회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권순영 당협위원장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한 육군 행정장교 출신으로 제6대와 7대 고양시의원을 지냈으며, 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연합회 회장,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교수, 국립 충북대학교 병원 상임감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중앙회 여군부회장, 국민의힘 중앙당 국제사무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방여성정책위원회, 재경경북대여성동문회장, 여성·장애인기업 마음이음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수상경력에는 국민훈장 목련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있다.

▲권대훈 교육장이 제33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취임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영천 출신으로 1987년 포항 석빙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해 울진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장학사, 포항 문덕초, 장흥초 교감,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민주시민담당, 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과장, 포항 신흥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권호량 전 대중회 부회장이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17일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출정식에는 읍면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추진 위원은 "지역소멸에 직면한 예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30만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량 위원장은 30여 년을 예천에서 살고 있으며 감전면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권옥영 국립공원공단 오대산사무소 소장이 3월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 소장은 지난해 2월 7일 취임 후 주민지원 사업인 국립공원 시민대학, 국립공원 명품마을 등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다. 권 소장은 한림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파견, 중무협력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권영우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가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영우 교수는 초소형 가속도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 장치의 사용으로 전국 규모의

지진 관측망 구축과 상시 지진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지진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진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영우 교수의 부친은 권갑현 정보산업위원장이었다.

▲권혁민 충북소방본부장이 취임했다. 음성 출신인 권 본부장은 1995년 소방간부후보생 8기로 소방에 입문했다. 종로소방서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권호량 전 대중회 부회장이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17일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겸한 출정식에는 읍면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추진 위원은 "지역소멸에 직면한 예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30만의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량 위원장은 30여 년을 예천에서 살고 있으며 감전면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권옥자 전 한살림서울 이사장이 15일 '제13차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전국 약 84만 세대의 소비자가 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옥자 상임대표는 1995년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해 한살림서울 이사장과 활동실장, 서울먹거리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32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안동권문(權門)의 성전(盛典)이요 자랑인 제32회 안동권씨 청장년 전국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34개 지역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전국 족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권문의 한마음 잔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회 개요-

- ❖ 일시: 2023년 4월 23일(일요일) 오전 10시
- ❖ 장소: 울산 문수국제양궁장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209)
- ❖ 주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 ❖ 주관: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 ❖ 후원: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 ❖ 내용: 개회식, 종목별 경기, 공연 및 장기자랑 등
- ❖ 대상: 전국 34개 지역 종친회, 청장년회

〈후원계좌: 농협 352-1381-4861-43 예금주: 권혁환〉
 〈공고접수: bjb03670@daum.net〉
 대 회 장: 권명달 : 010-3877-5674
 준비위원장: 권혁환 : 010-3855-3610

사무국장: 권응목 : 010-6476-8259
 울산청장년회 체육대회 준비사무실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44-1(다은건설)
 문 의 : 사무국 010-6476-8259

2023. 04. 01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대회장 권명달